https://doi.org/10.36034/yncdoi.2021..76.321

19세기 경상도 하양현 育英齋 설립과 운영 양상

채 광 수*

Ⅰ. 머리말
Ⅱ. 하양현 사족층의 동향
Ⅲ. 육영재의 설립과 운영 양상
Ⅳ.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경상북도 내 유일하게 건물 원형을 간직한 하양 육영재의 설립과 운영을 검토한 것이다. 養士齋의 일종인 육영재는 건축사적 가치도 높지만, 이 글에서는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후기 하양의 재지사족의 동향을 임난 의병활동, 향안·유안 등을 통해 살폈다. 그 결과 하양허씨를 필두로 이른바 '임난 창의 8의사'를 배출한 가문과 임난 후 이주한 청도김씨 등 유력 가문이 줄곧 향권을 주도해 갔음을 논증하였다. 또 재지사족의 성장과 문풍 진작은 류치명 문인 배출, 육영재 설립 등으로 이어졌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corhkdtn911@ynu.ac.kr

육영재는 1823년 현감 이태승의 주재와 사족들의 협조로 설립이 이루어졌다. 설립된 육영재의 구체적 교육 내용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재규』를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 교육 활동으로는 거접과 백일장 등이 실시된 사실을 검토하였으며, 강회 참석 후 남긴 시를 통해 교육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육영재는 지역의 사마시 입격자 배출에도 기여한 사실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였다.

경제 규모는 비교적 풍족한 전답 135두락을 보유하였음을 분석하였다. 통상 양사재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데 비해 육영재의 경우 하양향교에 속한 점은 향교와 육영재 참여 세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기존 유력 가문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수령의 흥학책 일환으로 설립이 되었고, 지역 유력 사족에 의해 운영이 된 육영재는 19세기 소읍의 관학 실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 주제이다.

◈ 주제어

육영재, 하양현, 교육, 사족, 수령.

Ⅰ. 머리말

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에는 18세기 새로운 유형의 지방 교육기관으로 등장한 養士齋가 남아있다.[1] 양사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하양에서는 육영재라 명명되었다. 육영재는 경상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간직해 건축사적 가치도 높지만, 무엇보다 설립과 운영 양상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소장한 곳이기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장 자료를 소개하면 육영재의 초창기 기록을 필사한 『育英齋事蹟』을 비롯해 인적구성, 경제기반, 기타 등의 고문서와 이를 통합한 『河陽育英齋誌』가 전하고 있다.[2]

그동안 양사재에 대해서는 설립 배경, 향교와의 관계, 교육 활동, 구성원 신분, 특정 지역 양사재 소개 등 그 성격과 실체를 어느 정도 조명한 연구 성과들이 도출이 되었다.[3]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고문서보다는 주로 읍지, 기문, 절목 등을 활용하다보니 양사재의 생동감 있는 구체적인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육영재 소장 고문서와 선행연구를 충실히 수용하여 조선후기 양사재의 일면을 살펴보려 한다.

이에 본고는 크게 두 장으로 구성을 하였다. 먼저 Ⅱ장은 조선후기 하양현의 재지 사족층의 동향을 임난 의병활동, 향안·유안 분석, 19세기 학맥 등을 통해 살폈고, Ⅲ장에서는 육영재의 설립 과정, 교육 활동, 경

---

1) 육영재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관리·보호되고 있다.

2) 육영재에는 『育英齋事蹟』, 『育英齋任案』, 『育英齋斗案記』, 『助錢錄』, 『引繼簿』 『輔仁稧帖』 『輔仁稧續修案』, 『河陽育英齋誌』 등이 소장되어 있다.

3) 양사재 관련해 대표적인 연구물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윤희면, 「양사재의 설립과 운영실태」,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1994. ; 정순우, 「조선후기 양사재의 성격과 교육활동」,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1994. ; 정진영, 「조선후기 養士齋의 성격 –수령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1994. ; 강대민, 「조선후기 양사재 구성원의 신분에 관한 小考」, 『문화전통논집』 3, 1995. ; 윤희면, 「綾州 養士齋 硏究」, 『전남사학』 제10집, 1996. ; 류진희, 「조선후기 호남지방의 양사재 一考」,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제적 기반, 인적구성 등을 현전하는 고문서 자료와 문집 기록을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육영재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 교육의 흐름에서 양사재의 역할, 나아가 小邑에서의 새로운 교육 기관 출현과 사족들의 관심을 살피는 것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비록 사례 연구라는 일정한 한계는 있겠지만 양사재 연구의 좋은 실례가 될 것이다.

Ⅱ. 하양현 사족층의 동향

宅近琴湖若可聽	집 가까이 금호강 물소리 들릴 듯 하고,
靑山面面府軒庭	청산은 사방에서 헌[聽琴軒]의 뜰을 내려다보네.
安仁物色如花樹	꽃나무와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어 넉넉하니,
文敬風猷認地靈	문경공의 遺風 신령도 앎이로다.[4]

하양현감 南遠明[5]이 동헌에서 읊은 詩의 일부로 하양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조선시대 하양은 비록 경상도의 작은 고을에 불과했지만 금호강이 흐르고, 꽃성[花城]이라 할 만큼 넉넉한 곳이었다. 더구나 하양은 조선의 예악제도 정비에 크게 공헌한 許稠의 유풍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조선후기 하양 사족층의 흐름과 주도 가문에 대한 일차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양은 선초부터 한말까지 몇몇 유력 가문 중심으로 향론이 주도되었고, 육영재 설립과 운영도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양의 문과 급제자는 허조를 포함해 7명[6]인데 모두 조선전기 인물이

4) 『화성지』 권2, <題詠>.

5) 1739년(영조 15) 하양현감에 부임한 그는 재직하는 동안 관아를 금락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위의 시는 그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하양현의 관아 자리는 현재 금락리 금호서원이다.

6) 하양 문과합격자 명단 : 허조(고려 及)·許誠(태종 及)·許翊(세종 及)·許慥(세종 及)·許

면서 토성인 하양허씨에서 배출이 되었다.[7] 이들은 허조와 그의 아들·손자, 조카, 5대·6대손이다. 하양허씨는 조선 초에 이미 鉅族으로 성장한 재경파와 상경종사하지 않은 채 읍치를 장악하고 있던 鄕派로 분화되었다. 사육신 사건 이후 경파의 일부가 낙향했고, 기존 향파가 존재했던 하양허씨는 지역에서 조선시대 내내 가장 강력한 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하양허씨를 비롯한 하양 재지사족의 성장은 임진왜란 의병활동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임난 의병 활동들은 국가 및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지역사회를 이끌게 하는 조건을 담보해 주었기 때문이다.[8] 그래서 여타의 지역처럼 하양에서도 전란 초기의 대응과 임난 후 향촌사회 정비가 사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9]

먼저 하양의 의병활동은 이른바 '창의 8의사'로 불리는 가문이 핵심이었다.[10] 舊 하양읍사무소에 있는 「壬辰倡義諸公河陽事跡碑」는 8의사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뛰어나고 걸출한 申海가 앞장서서 창의하여 단상에 올라 그 이름이 녹권을 받아 어려운 자리에 올랐다. 사려 깊은 黃慶霖은 병권을 이어받아 영천성 수복 전투에 공을 세웠다. 누가 곽재우을 좇았는가. 승정원 승지로 추증된 金鏶가 좇아 화왕산을 사수하여 치적을 행할 때 공이 높았도다. 난형난제 許大胤·許景胤의 공덕은 번갈아 금문을 사수하는 수문장으로 함께 녹훈에 기록되었다. 교목과 시목 朴能精·朴鵬 중 아버지는 적을 토벌하다 순국하였고 아들은 성을 지키다 고달팠도다. 또 다른 許應吉은 편한 생활을 버리고 화살통을 차서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하니(중략)"

誠(세조 及)·許輔(중종 及)·許亮(중종 及).

7) 사육신 사건 이후 관련자 재산이 적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양에 소재했던 許慥의 전답은 한명회에게 적몰되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허조 가문은 고려 말 하양을 떠나 재경관인의 길을 걸었지만 관향지에 전답을 두고 경향을 오가며,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수건, 「敬庵 許稠의 家系와 生涯」, 『敬庵許稠硏究』, 하양허씨문경공파종친회, 2003, 53~54쪽. ; 『세조실록』 권7, 3년 3월 23일)

8) 윤인숙, 「17세기 丹城縣 엘리트의 조직 형성과 인적네트워크 : 丹城鄕案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7, 2014, 82쪽.

9) 정진영, 「壬亂前後 尙州地方 士族의 動向」, 『민족문화논총』 제8집, 1987.

10) 창의 8의사는 신해(貫 평산), 김거(貫 김해), 허대윤(貫 하양), 허경윤(貫 하양), 박능정(貫울산), 박붕(貫 울산), 허응길(貫 하양), 황경림(貫 장수)이다.

8의사 중 하양허씨를 제외한 來姓의 여러 가문들은 임난 이전에 일정한 연고를 매개로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하양에 넘어온 사족들이다.

평산신씨의 신해는 임진왜란 당시 하양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전란 초기 의병진을 이끌었다. 그가 의병장에 추대된 배경은 무과 합격한 무반이었기 때문이다. 이 가계가 하양에 들어온 정확한 시기는 모호하나 이 지역 효자로 이름난 申休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있고,[11] 김시성의 증조모가 신휴의 딸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15세기에는 입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김시성은 1602년(선조 35)에 출생했다.

또 다른 의병장 黃慶霖은 장수황씨로 이 가계는 15세기 후반 하양에 입향을 했다. 원래 상주에 세거했으나 조부인 진사 黃憲이 초계군수를 지낸 하양허씨 許補의 딸과 혼인한 뒤 처향에 정착한 경우이다.[12]

울산박씨도 임난 이전에 하양에 들어왔다. 특히 울산박씨 朴能精·朴鵬 부자의 의병 활약은 매우 두드러졌다. 훈련원첨정을 역임한 무반 박능정은 정유재란 때 경상좌수사 李雲龍의 명령에 따라 울산의 왜성인 島山城 전투에 참여했다가 순절했고, 文行으로 천거되어 훈도를 지낸 박붕은 하양 수문장으로 5년 동안 堅城한 공이 있다. 또 박능정의 사위 金台鉉은 자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황경림과 내종 간인 김해김씨의 김거 가계는 임난 직전에 경기도 長湍에서 조부 진사 金世緯가 입향을 하였다.[13] 이처럼 의병활동을 전개한 8의사 가문은 임난 전후 하양의 유력한 사족층으로 볼 수가 있다.

이외 타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펼치다가 임난이 종식된 뒤 당사자 또는 후손이 하양에 입향한 가문들도 있다.[14] 영천이씨와 은진송씨가 그러한 사례이다. 영천이씨의 李幹은 일찍이 조식과 이숙량에게 수학을 했

---

1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7권, 「경상도-하양현-인물-신휴」.
12) 장수황씨대종회, 『長水黃氏世譜』 권1, 2000.
13) 김이덕, 『松亭集』 권2, 「부록-행장」.
14) 金大寬(貫 경주), 朴知遠(미상), 宋應賢(貫 은진), 宋傑(貫 은진), 宋希達(貫 은진), 李榦(貫 영천), 鄭仁光(미상) 등을 꼽을 수 있다.

고, 20세에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바 있다. 1615년(광해군 7) 진사시에 입격한 뒤 47세 때인 1622년(광해 14)에 영천에서 하양 남하로 오면서 영천이씨 입향조가 되었다.[15] 이간은 금호강 변에 萬古亭을 지어 학문과 후진 양성에 주력했는데 統制使에 오르는 金是聲도 그에게 수학했다.[16] 곧바로 향안에 입록이 될 정도로 상당히 명망있는 인물로 인식이 되었고, 후손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향후 이 가문은 지역의 유력한 사족 일원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순조연간 이간의 제향처 臨湖祠 건립과 이 시기 영남을 대표하던 판서 이원조에게 묘갈명 부촉이 가능했던 것도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은진송씨 문중기구인 遠溪書院과 靑川精舍의 제향자 송응현·송걸 부자는 밀양에 살던 중에 임란을 만나 순절했다.[17] 후손들은 임란을 피해 청도 각남을 거쳐 송응현의 8대손 宋景潤이 1791년(정조 15) 偏母 김해김씨를 모시고, 하양 還芝峰 아래 거처를 정하면서부터 始居한다.[18]

다음으로 임난 후 사족층의 향촌 정비 사업은 사족의 명부인 향안 복원과 소실된 향교 재건으로 나타났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1622년(인조 3)과 1628년(인조 9)에 작성된 향안과 儒案의 일부가 현전하고 있어 이때의 대체적인 하양의 사족 범위를 조망해 볼 수 있다.[19] 두 자료의 성관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5) 이간, 『乖庵先生逸稿』 권3, 「부록-編年略」.
16) 이간, 앞의 책, 「부록-編年略」.
17) 송응현·송걸 부자는 1605년(선조 38) 선무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다.
18) 은진송씨남계공종파, 「南溪處士公景潤墓碣銘」, 『南溪恩津宋公景潤追慕錄』, 2004.
19) 하양향교, 「하양향교연혁개요」, 『하양향교지』, 2005. 이는 현재까지 발굴된 경산에서 가장 오래된 향안 자료이다.

<표. 1> 하양 『향안』과 『유안』의 성관 현황[20]

연 도	하양 허	창녕 조	청도 김	동래 정	경주 최	옥산 전	결성 장	장수 황	영천 이	안동 임	울산 박	인천 채	김씨	계
1622년 향안	6	5	1	2	1	2	1	1	1	1	·	·	·	21
1629년 유안	3	1	3	·	1	·	1	·	·	·	1	1	1	12

우선 창의 8의사 가문 중 김해김씨와 평산신씨는 보이지 않는다. 김씨는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신씨는 인동부사를 역임한 신해가 아들이 없어 외손봉사로 계승이 된 까닭이다. 그의 외손은 바로 김시성이다.[21]

반면 새로 진입한 성씨의 등장을 목격할 수 있다. 임난은 다른 지역 사족들의 하양 이주를 촉진한 전기가 되어 주었다. 하양허씨의 비중이 여전한 가운데 창녕조씨와 청도김씨의 숫자가 비교적 많다. 당시 향권을 주도한 하양허씨의 중심인물은 허조의 9세손 허민이다. 서사원의 문인으로 主簿를 지낸 그는 동생과 아들이 동시에 향안에 입록이 되었다. 또한 許廷機·瓊·珩은 양안에 중복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허정기는 1608년(선조 41) 하양향교 대성전을 새로 지을 때 유사로 참여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때 曺緘이란 인물도 유사로 참여하면서부터 향촌사회에 창녕조씨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22] 그는 헌납 曺應祉의 아들로, 이 가문은 조함 이래 다수의 무과급제자들이 배출되면서 무반가문으로 자리한다.[23]

한편 청도김씨는 가문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김시성의 고조부 金忠臣 대부터 한양에서 내려와 하양에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구와 장현광의

20) 이수환, 「조선시대의 경산」, 『경산의 역사』, 경산문화원, 2015, 349쪽 [표 21] 재인용.
21) 경산문화원, 「統制使金公神道碑銘」, 『경산의 금석문』, 2016.
22) 하양의 창녕조씨는 조선 초에 이미 입향을 한 가계이다.
23) 『화성지』.

문인[24] 김시성은 이 가문을 넘어 하양에서 배출한 최고의 인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1637년(인조 15) 무과에 합격해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심양에서 보필했고, 무반외직으로는 최고위직인 통제사[25]를 역임하며 크게 현달하였다. 1663년(현종 4) 현종이 내린 「교서」 중에 '경의 깊은 그의 아량, 위대한 그의 자질 일찍이 초야에서 출신하여 상봉의 웅대한 뜻을 가지고 九鼎[26]을 드는 힘을 가졌으나 용맹을 나타내지 아니하며'[27]라는 표현은 그에 대한 신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시성이 사망하자 숙종은 친히 예조좌랑을 보내어 사당에 치제했고,[28] 나아가 그의 행장·묘갈명 등 문자의 필진이 당대 이름난 인물들의 손에서 작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후기 하양은 관직 진출자가 극히 드물었고, 무과에만 합격하더라도 사족 지위의 유지가 가능했음을 고려하면 차후 청도김씨의 사회적 위상 강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후 하양에는 재지사족의 명부인 향안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다행히 이를 보완해 주는 하양향교 『任事案』 2책과 『청금록』 1책이 현전한다. 앞의 것은 향교의 교임, 즉 도유사와 장의의 명부이며, 뒤의 것은 사족들이 기존 校案에 입록하지 않고 대신 그들만을 위해 작성된 유안을 말한다. 두 자료의 인적구성을 통해 향촌사회를 영도해 나간 전체적인 성관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임사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4) 정구의 문인록인 『檜淵及門諸賢錄』에는 金是鳴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본관과 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름을 誤記한 것 같다.
25) 정식명칭은 三道水軍統制使 겸 慶尙右道水軍節度使이다.
26) 九鼎 : 원래는 夏나라 禹 임금이 천하의 九州에서 쇠를 거두어들여 만든 솥으로 대대로 전하는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기물이다.
27) 김시성, 『錦浦三槐亭聯芳實記 單』 권2, 「부록-敎書」.
28) 김시성, 앞의 책 권2, 「부록-賜祭文」.

<표. 2>『임사안』 성씨별 현황[29]

구분	曺	박	허	이	김	鄭	황	도	장	林	서	최	채	현	全	나	한	申	윤	계
1684~1735	45	27	25	21	16	13	9	9	8	5	3	3	3	1	1	1				190
1760~1771	8	7	8	4	3	2		3	5		2	3	2				1	1	1	50
계	53	34	33	25	19	19	9	12	13	5	5	6	5	1	1	1	1	1	1	240

10명 이상을 점유한 상위 성관은 창녕조·울산박·하양허·영천이·청도김·정씨 순이다.[30] 앞 시기 향·유안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지역 내 위상에 비해 하양허씨의 적은 인원과 새로운 성씨들의 등장이 눈길을 끈다. 하양허씨의 경우 1684년(숙종 10)에 선조 허조를 제향한 琴湖書院의 설립과 관련이 있다. 금호서원은 하양에서 세워진 최초의 서원이다. 비슷한 시기 영남의 여러 사족들은 향교의 입록 범위가 확대되어가자 관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서원을 족적기반의 중심기구로 삼아 향촌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하양허씨 역시 문중 서원인 금호서원에 무게를 두면서, 향교 출입을 병행했던 것 같다. 향교 비중의 약화는 출입처 분산의 결과로 해석된다. 하양향교와 금호서원에 관련된 자료의 교차 검증을 요하지만 향교 우위 속에 상호보조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31]

1790년(정조 14) 금호서원은 국가 공인의 사액서원으로 승격이 된다. 금호서원 사액은 정조가 윤허한 특별 사액에 해당했다. 사실 청액 시도는 앞서 1713년(숙종 39) 정랑 金始鑌이 지은 상소문을 朴瑞鳳이 소수가 되어 올렸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32] 당시 실패는 1680년(숙종

29) 이수환, 앞의 책, 경산문화원, 2015, 351쪽 [표 22] 재인용.
30) 이러한 현상은 이웃 고을인 경산향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31) 1683년(숙종 9) 복현된 영양현의 향교와 英山書院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어간 경우와 유사한데 조선후기 향교가 아무리 교육적 기능이 부재했다 하더라도 공자를 모신 상징적인 공간이기에 재지사족들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영남학』 제64호, 2018.

6) 경신환국 이후 서원의 사액은 고위 관료와 연결된 서원이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공하기 힘든 구조에 기인한 결과였다.[33] 1790년(정조 14) 다시 청액 활동을 재개한 결정적 동기는 전년도에 황희를 제향한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에서 비롯되었다. “무릇 황희와 허조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신하들에 대하여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34]라는 청액소 내용이 금호서원 청액의 충분한 근거로 작용했다. 정조 역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해 “황희·허조는 똑같은 재상으로서 업적은 사람들의 이목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원에 아직껏 편액 이름이 없으니 결함이라고 할 만하다”[35]라며 사액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로써 하양허씨는 지역에서 유일한 사액서원을 보유한 가문이 되었다. 곧 향촌 내 권위를 한층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원을 중심으로 문중 운영 재편 및 강화로 이어졌다.

하양허씨의 서원으로의 편중 현상은 1784년(정조 8)부터 1912년까지 191년간 작성된 하양향교 교임 현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기간 하양향교 도유사는 73명, 장의는 184명이 재임했다. 이 중 하양허씨는 도유사가 7명, 장의는 23명으로 11%에 불과하다.[36] 지역에서 하양허씨가 차지하는 입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임에 틀림없다. 반면 사액서원을 보유하지 못한 청도김씨를 필두로 장수황·창녕조·성주도씨 등의 비율이 높다. 향교는 이들 諸 가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갔다. 이러한 향교 분위기는 1724년(경종 4)~1742년(영조 18) 환성사 점유를 둘러싸고, 하양향교와 영천 임고서원 간 치열하게 전개된 송사 주도자 면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송은 환성사를 하양 관아에 이속시키는 결과를 얻는다. 하양현 입장에서 민생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에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 사안의 성공에는 울산박씨의 박서봉, 장수황

32) 『승정원일기』 477책, 숙종 39년 4월 19일 병인.
33) 이수환, 「蔚山 鷗江書院의 設立과 賜額過程」, 『대구사학』 49권, 1995, 22쪽.
34) 『일성록』, 정조 14년(1790) 2월 13일 갑자.
35)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7일 무진.
36) 하양향교, 앞의 책, 2005.

씨의 黃允中, 金潤澤 등의 역할이 매우 컸다.[37]

이러한 재지사족의 성장은 지역의 학문 발전을 수반했다. 19세기 영남학파의 종장 류치명의 문인 6명 배출이 그것이다.[38] 이전 하양에는 영남학파와의 사승관계를 맺은 인물이 거의 없기에 주목할 대목이다. 이들 정재학파 일원인 金翊東·裵克紹 등이 육영재 설립과 운영에 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양의 육영재의 출현은 흥학을 중시한 수령의 부임과 이를 구현할 만한 지역 내 학문적 토대 구축이 배경이라 하겠다.

Ⅲ. 육영재의 설립과 운영 양상

1. 설립 과정

조선후기 관학 교육은 숙종연간 모든 고을에 양사재를 두는 것을 通規로 삼은 것과 1732년(영조 8) 조현명의 『권학절목』 반포한 이래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노정되었다. 지역에 따라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쇠퇴한 관학 교육 회복에 있었다. 하양 육영재의 설립 역시 당시 일련의 지방 관학 강화 정책 및 수령의 흥학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20년 부임한 하양현감 李台升[39]은 흥학에 관심이 높았다. 그래서 육영재 설립 직전에도 하양향교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육영재 설립은 대성전 중수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만큼 대성전 중수일지인 『聖廟

37) 하양향교의 환성사 점유에 대해서는 이광우, 「17~18세기 河陽 環城寺 決訟의 전말 -屬寺 점유를 둘러싼 관·향교·서원 간의 쟁송 사례-」, 『민족문화논총』 제72집, 2019 참조.

38) 하양지역 류치명 문인 : ◦하양허씨 - 許銈, 許鐫, ◦청도김씨 - 金翊東, 金鎭奎, 金載奎, ◦분성배씨 - 裵克紹.

39) 이태승[1767~?] : 본관 전주. 字 斗臣. 호 黃庭. 서울 출신이다. 1798년(정조 22) 진사시에 입격했고, 별제·주부·진도監牧官을 거쳐 1820년(순조 20) 하양현감에 부임했다.

重修時記略』에 의거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40]

대성전 공사는 1822(순조 22)년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그해 8월 釋菜禮에 참석한 교임은 건물의 누수를 확인하고, 논의 끝에 향교에서 제일 중요한 대성전 중수를 결정한 뒤 현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현감은 다시 감영에 보고했고, 감영에서는 예조에 啓聞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 허락을 얻었다. 대성전 중수는 22년 만의 일이었다.[41] 건축 부재는 전임 교임이 마련해 둔 碧松과 향교 屬寺 환성사에서 준비한 나무를 이용하기로 했다.

중수는 예조 關文이 도착하자 착수에 돌입한다. 10월 19일 우선 사신이 가져온 향축으로 移安祭를 지냈고, 위패와 제사 도구는 명륜당에 임시로 안치했다. 고유 당시 헌관에는 초헌관 현감 이태승, 아헌관 향교 齋長 金履德, 종헌관 금호서원 원장 蔡碩履가 담당을 했다. 이들은 모두 다음해 전개된 육영재 설립을 주도한 인사들이다.

김거의 7세손 김이덕은 자품이 남달랐고, 문장에 상당히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관아의 땔감 공급, 架山의 환상미와 군포의 폐단 등을 해결한 현감을 칭송하는 문자가 그의 손에서 작성된 것이다.[42] 또 1807년(순조 7) 경상감사 윤광안이 개최한 '달성향음주례'에 하양 사족을 대표해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43] 채석리는 17세기 중후반 대구에서 이거한 인천채씨 출신으로 부친이 1790년(정조 14) 금호서원 청액소 疏首로 활약해 성사시킨 蔡思玄의 아들이다. 이들이 금호서원에 관여한 것은 채석리의 외조모가 하양허씨라는 戚聯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는 문학으로 향촌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외 여러 집사들에는 하양향교 교임과 금호서원 원임들이 맡았으며,[44] 매일 새벽 명륜당에 봉심을 했고, 향

40)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에 탑재된 하양향교의 『聖廟重修時記略』를 참조하여 정리·요약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를 달지 않는다.(http://yn.ugyo.net).

41) 하양향교, 「純祖元年辛酉大成殿修葺」, 앞의 책, 2005.

42) 현감은 金秉淵과 愼宜默이다.

43) 김이덕, 앞의 책 권2, 「부록-행장」.

44) 제집사 명단 : 執禮 許木+功, 大祝 都命舜, 奉香 曺錫潭, 奉爐 許瓚, 東廡奉香 許瓘,

교 교생과 서원 원생 2명 등이 명륜당 숙직을 섰다.

이안제 다음날부터 와촌에서 역군을 동원해 기와 철거 ⇨ 서까래 수리 ⇨ 도배와 단청 ⇨ 편액 改粉 ⇨ 제기 수선 ⇨ 神門·계단 수리 ⇨ 열쇠·돗자리 구비가 이루어졌고, 11월 12일 제구 정비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11월 13일 還安祭 거행 때는 首獻官 이태승, 東廡 분헌관 김이덕과 朴守英, 西廡의 분헌관은 채석리와 曺彦國이 책임졌다. 그리고 11월 15일에는 명륜당과 서재 등의 추가 수리 작업을 벌였다. 대성전 중수 공사원에는 도유사 김이덕, 도감 채석리, 장의 曺錫潭과 許瓚, 別有司 秋榮震이었다.

중수의 재원은 儒戶錢 즉 하양 유림들의 부조금으로 충당했다. 관내 儒戶 총 933호 중 891호에서 2전씩 각출해 191냥 6전 5푼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37냥 7전 8푼이 소요되었는데 그 부족분은 향교·금호서원·南湖社·東湖社·양사재 등 校院에서 분담했다.

여기에서 중수 재원의 조달 주체 명단에 양사재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영재 설립 전신으로 보이는 양사재가 지역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45] 1819년(순조 19) 현감 金景寅이 450전을 모아 논 41頃을 조치해주고, '學田付養士齋'로 불렀다는 기록 또한 그 사실을 입증한다.[46] 김경인은 이태승 부임 직전의 하양현감이며, 1817년(순조 17) 3월에는 생도 20명을 선발해 강학을 펼친바 있다.[47] 그리고 동호사는 1830년(순조 30) 황경림을 제향할 때 이태승이 봉안문을 지어준 인연이 있는 곳이다.[48]

그렇다면 육영재는 양사재를 확대한 것일까?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 가령 옆 고을 경산현에는 민간의 正養齋와 관의 尙德祠 2개의 양사재가 있었는데 1805년(순조 5) 수령에 의해 하나로 통합한 사례 등 이와 비

奉爐 朴守文,

西廡奉香 申宅棟, 奉爐 韓爾俊, 典祀官 金元履, 謁者 曺慶憲.

45) 현재 하양 유림들의 구술에 의하면 양사재가 하양향교 내에 있었다고 한다.

46) 하양향교, 「純祖十九年己卯置學田付養士齋」, 앞의 책, 2005.

47) 경산시하양육영재, 『경산시 하양육영재 자료집』, 2016, 15쪽.

48) 「筆苑 - 동호사 봉안문」, 『화성지』.

슷한 경우들은 이미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49]

전국의 양사재 설립은 18세기 중반 이후 보편화된 양상을 보인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상도에서는 1721년(경종 1) 대구 낙육재를 시작으로 22개 군현에 양사재가 설치되었다.[50] 대부분 지방관의 의지와 사족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고, 육영재 역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육영재의 설립 과정과 운영에 대해서 면밀히 재구성해보자.[51]

먼저 육영재 설립 과정은 『육영재사적』, 『기문』 등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자료에서 설립 시기가 전자는 1822년, 후자는 1823년(순조 23)으로 차이가 난다. 다만 기문은 당대 기록인 반면 사적은 후대[1886년·1946년]에 필사한 것이다. 기문이 자료로서 신뢰성이 높기에 설립연도는 1823년이 타당하다. 이태승이 지은 기문에도 '계미년[1823년] 여름에 고을의 육영재가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52]

육영재는 1823년 이태승이 유림으로부터 육영재 설립 건의를 수용하면서 공론화하였다. 이에 2월 15일 桃李館에서 여러 면임들이 모여 새로운 터를 논의했고, 이태승과 산에 올라 하양향교 동남쪽 800m 지점의 산 중턱을 부지로 최종 낙점하였다. 19일 개토제를 지냈고, 다음날 환성사 安養室을 해체하여 필요한 목재를 확보했다. 목재 운반은 마양면 장정을 동원하기로 관령을 내렸다. 기본 준비를 마치고 3월 6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공사 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

49) 정진영·정순우·윤희면, 「앞의 논문」, 1994.

50) 강대민, 「앞의 논문」, 1995, 13~14쪽. 22개 군현에서는 하양 육영재는 빠져 있다.

51) 육영재의 설립 과정과 운영은 『育英齋誌』 바탕으로 서술했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는 생략한다.

52) 경산시하양육영재, 앞의 책, 2016, 18쪽. 그의 아들 진사 李用觀이 지은 상량문에도 1823년으로 적기되어 있다.

<표. 3> 육영재 설립 공사 일정

일 자	내 용
1823년 3월 6일	◦공사 인부 都料匠 1명, 副料匠 3명, 巨刀匠 1명, 都冶匠 1명이 공사 시작
3월 13일	◦주춧돌 배열
3월 19일	◦건물 기둥을 세우고 마룻대를 올림, 일부 목재 교체
3월 24일	◦중림에서 구운 기와 운반
4월 3일	◦신령면에서 보낸 나무 31柱 운반, 거도장에게 나무를 자르도록 함
4월 9일	◦인부 2명이 13일에 걸쳐 기와로 지붕을 임
4월 19일	◦벽면 미장 공사, 2개의 방에 온돌 설치
4월 26일	◦包舍[관리실] 건물 기둥을 세우고 마룻대를 올림
5월 10일	◦대청의 창호와 벽체 공사[5월 마지막 날 마무리]
6월 1일	◦대청과 2개 방에 도배, 대문 건립[5일 소요]
6월 7일	◦기문, 상량문, 齋號 3개의 현판을 불굴사 승려 錦謙이 새김
6월 11일	◦3개 현판 게시
6월 15일	◦낙성식 개최

약 3개월의 공사 끝에 청사 5칸, 포사 3칸, 대문 1칸 규모의 3동 건물에 육영재의 편액을 걸었다. 육영재의 齋號는 맹자에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得天下英才 而敎育之三樂也]'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53] 이태승은 이때의 감회를 '그 문에 들어서니 그 제도와 규모가 흡족하였고, 마루에 올라보니 자리잡은 터가 사랑스러웠다'라고 표현했다.[54] 또 '고을의 선비들이 이곳에서 강독하고, 이곳에서 생활하며 재주를 기르고 행실을 힘써 오래도록 그만두지 않는다면 허조나 김시성 같은 분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어찌 알겠는가?'라며 그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태승의 지원과 노력이 가장 크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

53) 장인진, 「경상감영 낙육재(樂育齋)의 교육과 문화 소통」, 『영남학』 제20호, 2011, 249쪽.
54) 경산시하양육영재, 앞의 책, 2016, 19쪽.

태승과 교유가 두터웠던 진사 김익동[55]은 그의 공적을 '황폐한 고을에 원대한 경륜을 남겼다'는 말로 압축했다.[56] 김익동은 류치명의 문인으로 당대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였다. 낙성식에는 이태승을 비롯해 수 백명이 자리하여 설립을 축하했다.

한편 육영재의 공사비는 대성전 중수 때와 동일하게 각 면에 분배한 請助錢과 부조 형식으로 조달했다. 청조전은 현내 소속 7개면 252명에게 336냥 2전을 거둔 것과 李能得이라는 인물이 100냥, 祭禮錢 19냥 4전, 壯元禮錢 5냥 6전 도합 461냥 2전을 수합해 공사비에 사용을 했다.[57]

2. 운영 양상

우선 하양 육영재의 운영체제는 배극소[58]가 찬술한 『齋規』가 있어 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다만 본 재규는 설립 당시의 것이 아니라 1854년(철종 5) 경 작성한 것이지만 그 대체를 살피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59] 배극소는 김익동과 함께 류치명 문하에서 동문수학했고, 1850년(철종 1) 철종 즉위 기념으로 주최된 增廣監試覆試 생원시 장원에 입격할 만큼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다. 문장과 시뿐 아니라 예

55) 김익동[1793~1860] : 본관은 청도. 자는 子翼. 호는 直齋. 류치명의 문인이다. 1819년 진사시에 입격한 후 문과에 응시했으나 실패하자 과거를 단념했다. 그 후 학문에 침잠하며, 老隱精舍·(龜淵亭 설립과 향약 보급을 통해 지역 문풍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저서로 고금의 喪祭儀를 편집한 『喪祭儀輯錄』과 『직재문집』이 전한다.

56) 김익동, 『直齋文集』 권3, 「書-與趙庾性敎(갑인년, 2편)」. 이 대목을 지적해 준 심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57) 『助錢錄』.

58) 배극소[1819-1871] : 본관은 盆城. 자는 乃休. 호는 묵암·雲溪이다. 김익동과 류치명에게 수학하였다. 1850년에 생원시에 입격했고, 문장과 시에 능하였으며 특히 예설에 밝아 제현들과 예설에 관하여 문답한 것이 많다. 당대 명사인 이돈우, 柳致儼, 權璉夏, 李晩慤, 徐贊奎 등과 교유했다. 『묵암집』 3책이 전하며, 『四禮簡要』 1부가 있다.

59) 김익동, 『直齋文集』 권1, 「詩-奉錢李侯」.

설에 상당히 밝았고, 어릴 때 대구 '樂育齋'에서 수학한 경험[60]까지 겸비하고 있어 『재규』를 작성할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다. 10개항으로 제정한 『재규』의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齋規[61]

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을 익히는 것은 본래 서로 관찰하여 善을 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선을 보면 서로 본받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60) 배극소, 『묵암집』 권6, 「묘갈명」. 낙육재에서 수학한 하양출신의 또 다른 인물들로는 金顯周[貫 김해], 都鼎東[貫 성주], 黃萬祚[貫 장수]. 黃在瓚[貫 장수] 등이 확인된다. 황재찬, 『梧堂詩文集』. ; 채휘균, 「조선후기 영남 樂育齋 연구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6, 2008. ; 장인진, 「앞의 논문」, 2011.

61) 배극소, 앞의 책 권4, 「雜著-齋規」.

一.群居肄業 本爲觀善之地 則見善相效 有過相規 然後方不負群居之義

一.飭身之要 始於衣服冠屨 次及言語步趨 而衣冠須潔淨整束 不可寬慢 鞋屨須進止有常 不可胡雜 語言必
詳緩謹愼 切勿喧鬨躁妄 行步必徐緩安重 切勿輕疾跳躑

一.每日早起盥濯 整飭衣巾 灑掃室堂 拂拭几案 整頓筆硯 然後乃啓方冊

一.凡讀書 須列序端坐 開卷整肅 心眼俱到 音響了亮 徐緩勿迫 不可有差誤 寫字須端楷方正 不得潦草

一.夫讀書 非爲要誦說句讀而已 必須玩繹旨義 體驗身心 而有所疑晦 則不得放過 先須深思自得 仍與論確
儕友各悉所見 乃爲就質

一.疑難之際 無論少長 必須問於勝己者 而勝己者 亦須詳細解說 不得厭怠慢浪 方可爲蓬麻之益

一.每日須早會晩歸 不得中道浮戲 不得昏惰晝寢 不可相詬競爭 不可妄論長短 不作閒出入 不爲閒酬酢

一.前輩云 壞筆汙墨 瘝子弟職 書几書硯 自點其面 此爲最不雅潔 切宜深戒

一.每月朔望 行相揖禮 以習揖讓之儀 仍隨所讀 設講背誦 以試工程之勤慢 如有不通者則冠者付罰 童子
施楚

一.爲學之要 莫緊於夙興夜寐 而敬所以爲其田地 則會講之日 須先講敬齋箴夙夜箴一通 俾知有所本

一.月朔 自會中出 直月一員 直日二員 俾司規勸督察之責 有違節目者 則直月直日 須據理警戒之 戒之而
不改 則須據理嚴責之 責之而不改 則自堂中施罰

바로잡은 뒤에야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의리를 어기지 않을 것이다.

一. 몸을 단속하는 요체는 의복을 입는 것과 갓과 신을 착용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말하는 것과 걸음걸이에 미친다. 의관은 반드시 깨끗하고 단정하게 착용하고 풀어헤치고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신발은 반드시 가고 머무는데 법도가 있어야 하고 어지럽게 두어서는 안 된다. 언어는 반드시 자세하고 천천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 절대 시끄럽거나 경솔하게 하지 말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천천히 편안하고 무겁게 해야 하고 절대 경솔히 달리거나 뛰어다니지 말아야 한다.

一. 매일 일찍 일어나 세면한 다음 의복과 두건을 단정히 갖추고, 방과 마루를 물 뿌려 쓸고 안석과 책상을 털고 닦으며 붓과 벼루를 정돈한 뒤에 바로 책을 편다.

一. 무릇 독서할 때는 반드시 줄지어 단정히 앉아 책을 펴고 정숙하게 하여 마음과 눈은 모두 책에 있도록 해야 한다. 책을 읽는 소리는 또렷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며 천천히 읽고 다급하게 하지 말며 잘못 읽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글자를 쓸 때는 단정하고 방정하게 써야 하고 어지럽게 날려 써서는 안 된다.

一. 무릇 독서는 句讀만 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글의 뜻을 충분히 찾아내어 몸과 마음에 체험해야 한다. 의심이 나고 모르는 곳이 있으면 방과하지 말고 먼저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체득하고 이어서 동료들이 각각 알고 있는 소견을 의논하여 확정한 다음 나아가 질문을 해야 한다.

一. 의심과 논란이 있을 때는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따지지 말고,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나은 사람도 반드시 상세히 해설해주되 싫어하거나 태만하게 하지 말아야 자신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一. 매일 반드시 일찍 모여서 늦게 돌아가되 중도에 부질없이 놀거나 게으르게 낮잠을 자서는 안 되며, 서로 다투거나 서로 장단점을 함부로 따져서는 안 되며, 한가히 출입하거나 한가히 잡담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一. 선배들이, 붓을 뭉개고 먹으로 더럽히는 것은 자제의 직분을 저버리는 것이고 책상과 벼루에 낙서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가장 불결한 행동이다. 절대 깊이 경계해야 한다.

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서로 揖讓하는 예를 행하여 읍양의 儀節을 익히고, 이어서 책을 읽은 바에 따라 강회를 마련해 背誦하도록 하여 공부의 과정이 부지런했는지 태만했는지 시험하되, 만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갓을 쓴 사람은 벌을 주고 동자는 회초리를 친다.

一. 학문의 요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까지 부지런히 힘쓰는 것보다 긴요한 것은 없으나 敬이 그 터전이 되는 것이니, 모여서 강마할 때 먼저 「敬齋箴」과 「숙흥야매잠」을 강론하여 근본한 바가 있음을 알도록 해야 한다.

一. 매월 초하루 강회에서 直月 1員, 直日 2員을 선출하여 학문을 권면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도록 한다. 절목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직월과 직일이 이치에 근거하여 경계하고 타일러야 한다. 경계해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이치에 근거하여 엄중히 꾸짖어야 하고, 꾸짖어도 고치지 않으면 당상에서 벌을 준다.

위의 『재규』는 육영재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따라야 할 규칙으로 立志, 檢身, 독서, 독법, 愼言, 금제, 처벌, 임원 선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교육 기관답게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 내용에 충실하며, 입학의 연령제한은 두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위의 내용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이의 「학교모범」, 정구의 「講法」 등을 차용하여 육영재 특성에 맞게 작성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평이하나 구체적인 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재규』의 작성자가 낙육재 출신인 만큼 강학 체험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육영재에서 공부하는 경전이 적기되어 있지 않지만 『재규』 9항에 강마에 앞서 퇴계가 공부의 요체로 제기한 「경재잠」과 「숙흥야매잠」을 강론한다는 말처럼 '敬' 공부를 지향하였다.[62] 육영재에서 진행된 교육은 설립을 주도한 김이덕 행장에 일부 수록되어 있다. "일찍이 태수 이태승과 함께 하양 북쪽 옛 읍터에 육영재를 설립하여 재규를 간략히 정하고 봄가을로 학업을 강마하였는데, 대략 看詳學制[63]를 본받아 온 고을에서

62) 정순우, 「사미헌 장복추의 '夙興夜寐箴集說' 연구」, 『영남학』 제14호, 2008, 295쪽.
63) 간상학제 : 정이는 송 철종 때 崇政殿說書가 되어 孫覺과 더불어 태학의 제도를 수정

嘉祐 연간[64]의 풍도라고 불렀다."[65] 또 1907년에 작성된 「慕聖齋記」에도 '봄과 여름에는 과거 시험 과목인 功令文을 시험치고, 가을과 겨울에는 성리학을 강론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66]

자료의 한계로 학생 선발 절차, 실제 교육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강회에 참석한 뒤 소회를 담은 시가 문집에 전하고 있어 그러한 교육적 분위기는 엿볼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 2편을 소개해 본다. 먼저 배극소의 「育英齋講會韻」이다.

此會粗將夙志明	이 모임에서 그럭저럭 오래전 뜻을 밝히니,
襟紳觀感庶求成	선비들 그 뜻을 보고 느껴 성공하길 바라네.
發軔初程由善導	출발하는 처음 과정 잘 인도하는 대로 따르고,
盍簪同席暢幽情	뜻 같은 벗들과 동석하여 깊은 정을 펼치네.
寧把玄經嘲欲解	어찌 태현경으로 조롱을 해명하고자 하는가,[67]
要看素履擇須精	평소의 뜻을 가려서 반드시 정밀하게 해야지.
千言不若躬修一	온갖 말들은 몸소 닦는 것 하나보다 못하니,
誰向塵編示我行	누가 옛 성현의 글로 나에게 큰 길 보여줄까.

오래전 뜻은 현감 이태승의 설립 취지를 언급한 것이며, 현실에 맞고 정밀한 공부와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 육영재 운영을 설계한 주역다운 시이다.

이어 김익동의 족손 道山 金鎭奎의 「이한여가 육영재 강회 시를 차운하여 내가 다시 그 운자를 따라 짓다[李漢如追次英齋講會韻 余更步其韻]이다.[68]

보완하였는데, 學制를 자세히 살핀 결과를 이 글을 통하여 피력하였다. 『程氏文集』에 실린 원제는 「三學看詳文」이며, 철종 원년(1086) 5월에 지은 글이다.

64) 嘉祐 연간 : 북송 인종의 연호로 1056년~1063년이다. 程頤가 강학하던 시대를 말한다.

65) 김이덕, 앞의 책 권2, 「부록-행장」.

66) 경산시하양육영재, 앞의 책, 2016, 47쪽.

67) 태현경으로……해명하고자 하는가 :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이나 문장에 힘쓰는 것을 말하다.

68) 김익동이 김진규의 시에 次韻한 것도 전한다. 『직재문집』 권2, 「詩-次族孫國明鎭奎育英齋講會韻」.

每恨疎才識未明	매번 서툰 재주에 밝지 못한 식견 한스러워,
從前斅學擬資成	종전의 교학의 뜻에 기대 완성해보려 했네.
猥居師席非愚分	외람되이 사석을 맡았지만 나의 분수가 아니요,
薄試鄕閭愧本情	잠깐 고을에 시험해보지만 본 마음에 부끄럽네.
窺覘古人難影響	옛 사람을 엿보아도 그 영향을 얻기가 어렵고,
參商諸友誤微精	벗들과 떨어져서 은미하고 정밀한 뜻 그르치네.
究經欲補桑楡計	경서를 탐구하며 만년의 계획 보충하고자 하나,
漸覺前程遠遠行	앞으로 갈 길이 멀고도 멀리 있음 점점 느끼네.

觀公姿地瑩然明	공을 살펴보니 그 자태가 환하게 빛나니,
此事何難做乃成	이런 일을 행하여 이루기가 어찌 어렵겠나.
自有從容持己度	본래 조용히 자기를 지키는 도량이 있었고,
況兼謙謹接人情	겸손과 신중으로 남을 대하는 정까지 지녔네.
守心更着操存密	마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 조존 공부 정밀하고,
鍊業尤加解釋精	학업을 더욱 열심히 닦아 해석함이 정밀하네.
莫歎蝸廬鬢髮白	작은 초려에서 백발이 된다고 탄식치 말게나,
漫漫餘日有前行	기나긴 남은 날들이 앞으로 길에 놓여있으니.

류심춘과 류치명 양 문하에서 수학한 김진규가 훈장을 맡았을 때 지은 것 같다. 재주와 식견이 부족한 본인이 師席에 있다면서 이한여라는 인물의 학문과 행동을 칭찬해 마지않았으며, 나아가 본인도 더 많은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이 묻어있다.

이외 육영재에서는 거접과 백일장 등도 수시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69] 1823년 7월에는 낙성을 기념해 거접과 백일장이 동시에 개최가 되었다. 거접은 15명이 모여 10일간 이어졌고, 현감이 출제한 試題를 두고 우열을 가렸다. 거접을 종료한지 10일 뒤에는 백일장을 열었는데

"긴 밤 쇠잔한 등불 한 점이 밝은데 우리들은 학문의 길 성취하기를 서로 힘썼도다.
이 몸을 돌이켜보면 아직 편벽한 병통이 남아 있으나 그대를 보면 모두가 애연한 마음일세.
화갑은 비록 일찍 함과 늦음이 다르나 책 읽는 데는 함께 정미함을 토로한 것일세.
이미 첫 걸음부터 평탄한 길을 찾았으니 모름지기 노력해서 응당 멀리 갈 것이다."

69) ◦七月初六日壬申居接, ◦旣望設白日場 ◦二十一日丁亥更設白日場, 『育英齋事蹟』.

영천과 자인 수령이 함께 자리했고, 70명이 모여 賦題를 두고 솜씨를 겨루었다. 이에 고무된 것인지 이태승은 21일 밤에도 여러 유생들을 불러 백일장을 재차 열었다. 부제는 '골짜기에 걸쳐있는 큰 집을 이루었다[架壑材扶成大廈]'였고, 시한은 세 시각으로 제한했다. 두보의 大暑詩에서 따온 구절인 것 같고,[70] 큰 집은 육영재를 지칭하는 듯하다. 이 가운데 작품이 우수한 20명에게는 소고기를 포상했고, 동몽들에게는 종이를 주어 치하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한편 육영재와 과거 시험은 연관이 있었을까? 앞서 언급했듯 하양현 문과급제자는 조선전기에만 존재했을 뿐이고, 사마시에는 12명이 나왔다.[71] 이 중 육영재 설립 뒤 사마시 입격자가 절반이며, 육영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김익동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7명이다. 19세기 이후 과거 제도가 문란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양현 입장에서는 괄목할 만한 결과이다. 육영재가 지역의 문풍 진작과 사마시 입격자 배출 증대에 기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양사재의 교육재정은 통상적으로 수령이 제공하는 전답, 즉 學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규모는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향교의 절반 정도 수준을 보유하면서 독자적 경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72] 물론 수령의 관할 하에 있는 환경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면 육영재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 다행히 경제 기반을 파악할 수 있는 『育英齋斗案記』가 전한다. 1880년(고종 17)에 성책된 두안기에는 육영재 소유의 전답 위치, 토지 결수와 收稅량, 경작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읍면별로 정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

70) 두보의 대서시에 "南望青松架短壑 安保赤脚踏層氷"의 구가 있다.

71) 하양현 사마시 입격자 명단 : 許輔(중종), 許弼(중종), 黃憲(중종), 이간(선조), 裵尙度(효종), 김익동(순조), 金顯周(헌종), 배극소(철종), 蔡鵬(철종), 孫相鳳(철종), 孫秀杓(고종), 黃在瓚(고종).

72) 강대민, 「앞의 논문」, 1994, 12쪽.

<표. 4> 육영재 전답 소유 현황

지 역	邑內坪	北面坪	瓦村坪	中林坪	慈仁坪	磨陽面	藥山面	합계
규 모	31두락	18두락	25두락	26두락	10두락	17두락	8두락	135두락
수세량	89負47束	57負6束	67負34束	51負29束	28負14束	35負39束	14負10束	341負 179束

『두안기』에는 크게 두 시기의 전답량이 수록되어 있다. 앞 시기에는 와촌·중림·자인 3개 지역에 34두락지 281부 40속의 수세량을 가지고 있었다. <표. 4>는 뒤 시기의 현황인데 전답량이 거의 4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하양현과 동일한 종6품 현감이 파견되는 전라도 광양현의 양사재 수세량이 92부 5속이었다. 이와 비교해 보더라도 분명히 많은 수치임에 틀림없다.[73] 소유지가 3지역에서 현내 전역으로 확대가 된 모습이며, 읍내·와촌·북면의 비율이 높다. 그전의 규모는 1869년(고종 6) 106두락으로 파악이 되었다.[74] 아마 지방관 획급, 자체 매득과 기부, 훼철된 금호서원 전답 이속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보·확충해 나간 결과로 해석된다.

영조 연간 편찬된 『속대전』에는 군현향교의 학전 액수는 5結 약 75두락지로 규정하고 있다. 옆 고을 자인향교의 경우에는 1895년(고종 32)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학전을 보유하고 있었다.[75] 그러나 하양향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전답과 재정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 점은 1869년 향교의 지출을 절약할 목적으로 도유사 김덕흠 등이 작성한 「기사년하양향교절목」에 잘 나타난다. 본 절목은 당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절목을 개정한 것이다.[76] 이 자료에 따르면 향교의 전답 수세는 233두락 5되에 이른다. 여기에 향교의 기타 수입, 훼철 원사와 육영재 수입까지 합산해 계산하고 있다. 이 시기 하양향교는 상당한 규모의 경

73) 윤희면, 「양사재의 설립과 운영실태」, 『조선시대 전남의 향교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 225쪽.
7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己巳年河陽鄕校節目」, 『경북향교자료집성(Ⅰ)』, 1992.
75)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 연구』, 일조각, 1990, 220쪽.
76) 김덕흠, 『桐叟遺稿』, 「跋-書鄕校節目後」.

제력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77]

그런데 여기에서 육영재의 재정이 향교에 속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립 후 지속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통상적인 양사재 재정 운용과는 차이를 보이는 육영재 만의 특징으로 지적해 둘 만하다. 이는 두 기관 모두 수령 통제 하에 있거니와 향교와 육영재 운영 및 참여 세력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육영재의 운영층은 누구였을까? 육영재는 향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지만 별도의 임원을 두고 있었다. 임원의 직제는 책임자 훈장 1인 - 실무자 유사 2인 체제를 기본으로 했고, 시기에 따라 유사를 1~2명을 더 선임하는 등 그 형태는 약간씩 달랐다. 재임기간은 1년 내지 2년이었으며 연임·중임이 가능했다. 육영재의 훈장은 유사를 거쳐 취임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육영재 전체 임원 명단이 현전하지 않고, 1861년(철종 12)부터 1938년까지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70년간 훈장 75명, 유사 218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고, 1861년부터 1921년까지는 성관이 기재되어 있다. 전모를 살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나 육영재 운영 주도층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듯하다. 통계를 내면 <표. 5>와 같다.

<표. 5> 1861년~1921년 육영재 임원 성관별 통계표

구분	하양허	청도김	경주최	창녕조	김해김	영천이	단양우	문화류	울산박	은진송	장수황	성산여	성주도	안동임	인천채	한양조	밀양박	밀양손	동래정	연일정	옥산전	은진송	현풍곽	기타[78]	합계
훈장	14	9	7	6	6	3	2	2	2	2	2	1	1	1	1	1	·	·	·	·	·	·	·	·	60
유사	22	11	13	7	7	12	3	5	13	·	10	·	11	·	5	·	4	3	2	2	2	2	2	11	147

77) 하양향교 기타 수입 : 復戶錢 25냥·良丁錢 80냥·庫子錢 8냥·燒木錢 8냥, 서원 수입 : 收稅畓 130여 斗·양정전 40냥·고자전 7냥 8전·소목전 4냥, 육영재 수입 : 收稅畓 106두락.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앞의 책, 1992.

78) 기타 성관은 각기 1명씩으로 결성장·경주김·경주이·김해배·수원백·순천박·안동권·안동임·월성박·창원황·해주오씨이다.

육영재의 임원은 총 35개 성관에서 참여를 했고, 유사보다 격이 높은 훈장은 16개 성관에서만 나왔다. 지역의 유력 성관인 하양허씨와 청도김씨 및 창녕조·영천이·울산박·장수황씨가 당시까지도 건재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하양허씨와 청도김씨 양 가계에서는 류치명 문인들이 배출되면서 지역 학풍을 주도하던 시기였다. 반면 동문이자 「육영재규」를 작성한 배극소의 후손들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1869년(고종 6) 영천 龍山으로 옮겨 여생을 보낸 까닭으로 추정된다.

금호서원을 중심으로 출입하던 하양허씨의 비중이 확대된 이유는 1871년(고종 8) 대원군 사액서원 훼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교의 참여율이 다소 낮은 데다 서원마저 훼철된 하양허씨 입장에서는 새로운 향촌 기구인 육영재 참여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 내재해 있었다. 더하여 경주최씨와 김해김씨의 약진이 나타나는 가운데 단양우·문화류씨처럼 새롭게 등장한 성관들이 산견된다.

이들의 후손들은 보다 원활한 운영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1898년(광무 2) 보인계를 결성했고, 1905년(광무 9)에는 중수를 하였다.[79] 그러나 을사조약 이후 일제의 통감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고, 육영재는 논 17두락을 방매, 신학교 설립 자금으로 전답 60두락을 희사 등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갔다. 1907년 지역의 유림들은 육영재를 '慕聖齋'라 改號하고, 운영 규정을 수정해 그 명맥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조선후기 하양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유력한 가문이 큰 변동 없이 그 위상을 지속한 것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교는 18세기 이래 신향들이 장악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양향교 또한 그러한 경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름난 학자의 부재, 한미한 문과급제자 수, 문중과 연계된 사액서원 등 사족들의 향촌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사족의 특권을 보장해 주는 가장 큰 향촌 기구는 향교일 수밖에 없었다. 육영재도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 유력 가문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

79) 『輔仁稧帖』.

다. 이는 조선후기의 향촌 교학진흥책이 사회변화를 수용한 개혁적 정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의 틀에서 재정비와 개선을 도모한 맥락과 같다.[80] 아무튼 수령의 흥학책 일환으로 설립된 하양의 육영재는 19세기 소읍의 관학 실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경상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건물 원형을 간직한 하양 육영재의 설립과 운영을 소장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았다. 본론에서 살펴본 특징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조선후기 하양의 재지사족의 동향을 임난 의병활동, 향안·유안 등을 통해 살폈다. 그 결과 하양허씨를 필두로 이른바 '임난 창의 8의사'를 배출한 가문과 임난 후 이주한 청도김씨 등 유력 가문이 줄곧 향권을 주도해 갔음을 논증하였다.

육영재는 1823년 현감 이태승의 주재와 사족들의 협조로 설립이 이루어졌다. 설립된 육영재의 구체적 교육 내용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된 『재규』를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 교육 활동으로는 거접과 백일장 등이 실시된 사실을 검토하였으며, 강회 참석 후 남긴 시를 통해 교육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육영재는 지역의 사마시 입격자 배출에도 기여한 사실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하였다. 경제 규모는 비교적 풍족한 전답 135두락을 보유하였음을 분석하였다. 통상 양사재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용되는데 비해 육영재의 경우 하양향교에 속한 점은 향교와 육영재 참여 세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기존 유력 가문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수령의 흥학책

80) 정만조, 「朝鮮後期의 鄕村敎學振興論에 대한 檢討-地方官의 興學策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327쪽.

일환으로 설립이 되었고, 지역 유력 사족에 의해 운영이 된 육영재는 19세기 소읍의 관학 실체를 보여주는 한 사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연구 주제라 생각된다.

※ 이 논문은 2021년 1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원본

『승정원일기』, 『실록』, 『일성록』, 『화성지』, 육영재 소장 고문서.

문집·단행본

김시성, 『錦浦三槐亭聯芳實記 單』.
김이덕, 『松亭集』.
배극소, 『默庵集』.
이간, 『乖庵先生逸稿』.

경산문화원, 『경산의 금석문』, 2016.
경산시하양육영재, 『경산시 하양육영재 자료집』, 201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경북향교자료집성(Ⅰ)』, 1992.
윤희면, 『조선시대 전남의 향교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5.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 연구』, 일조각, 1990.
은진송씨남계공종파, 『南溪恩津宋公景潤追慕錄』, 2004.
장수황씨대종회, 『長水黃氏世譜』, 2000.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하양향교, 『하양향교지』, 2005.

논문

강대민, 「조선후기 양사재 구성원의 신분에 관한 小考」, 『문화전통논집』 3, 1995.
류진희, 「조선후기 호남지방의 양사재 일고」,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윤인숙, 「17세기 丹城縣 엘리트의 조직 형성과 인적네트워크 : 丹城鄕案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7, 2014.
윤희면, 「綾州 養士齋 硏究」, 『전남사학』 제10집, 1996.
_____, 「양사재의 설립과 운영실태」,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1994.
이광우, 「17~18세기 河陽 環城寺 決訟의 전말 -屬寺 점유를 둘러싼 관·향교·서원 간의 쟁송 사례-」, 『민족문화논총』 제72집, 2019.

이수환, 「蔚山 鷗江書院의 設立과 賜額過程」『대구사학』 49권, 1995.
_____, 「조선시대의 경산」, 『경산의 역사』, 경산문화원, 2015.
장인진, 「경상감영 낙육재(樂育齋)의 교육과 문화 소통」, 『영남학』 제20호, 2011.
정순우, 「조선후기 양사재의 성격과 교육활동」,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1994.
_____, 「사미헌 장복추의 '숙흥야매잠집설(夙興夜寐箴集說)' 연구」, 『영남학』 제14호, 2008.
정진영, 「壬亂前後 尙州地方 士族의 動向」, 『민족문화논총』 제8집, 1987.
_____, 「조선후기 養士齋의 성격 –수령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7권 4호, 1994.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영남학』 제64호, 2018.
채휘균, 「조선후기 영남 樂育齋 연구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36, 2008.

▦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Yukyeoungje, Hayang-hyeon, Gyeongsang-do in the 19th Century

Chae, Gwang-soo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ayang Yukyeoungje, the only village school that retains its original form of building structure in Gyeongsangbuk-do. Yukyeoungje, a type of yangsaje, is not only superior in terms of value in architectural history but also is valuable for its collection, based on which this study has examined the vital and concrete aspects.

First, the study has explored the trends of provincial noble families in Ha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through civilian army activities during the Imjin War, Hyangan and Yuanan and found that the families who produced the so-called '8 martyrs of Imjin War' led by Hayang Heo family and other influential families who moved into the village following the Imjin War, including Cheongdo Kim family continued to lead the local authorities. In addition, the growth of provincial noble families and the promotion of learning led to brilliant achievements such as the creation of exceptional scholar Ryu Chi-myeong and the establishment of Yukyeongjae.

Yukyeongjae was successfully built in 1823 with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or Lee Tae-seung and the cooperation of scholarly families. The study was able to identify the details of the education

conducted at Yukyeongjae through the 'Jaegyu' written aligned wit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educational activities that were carried out include geojeop and essay contest, and the poem left after attending the even gave a glimpse of the educational atmosphere there. The study has also found out based on numerical data that Yukyeongjae contributed to producing local talent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Samasi test.

The farmland is found to have been 135 duraks in area, which indicates relative economic well-being. Typically, the yangsaje, the dormitory building for students, has financial and operational independence, but Yukyeongjae belonged to Hayanghyan Confucian School, indicating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Confucian school and Yukyeongjae in terms of their participatory influence. Operated exclusively by existing influential families, it has fulfilled its role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Established as part of the education promotion policy of the local chief, Yukyeongjae, is a significant research topic that serves as an example of government schools in local villages in the 19th century.

keywords :
Yukyeongjae, Hayang-hyeon, education, scholarly family, local chief.